

#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발전전략 마련 노력”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황광연**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제7대에 이어 제8대 대전·충남도회 회장에 재임된 황광연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 제8대 회장으로 재임된 소감과 각오

저에게 다시한번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충남도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무언의 채찍으로 생각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2008년에는 새정부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감소와 소비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자재가격 급등, 경제침체로 인한 공사물량의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구상 하였던 기계설비 비전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사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우리업계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분리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발주기관과 유대관계를 지속하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12년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설비건설업계의·도급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신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충청지역 설비관련 3개 단체를 대표하는 대전·충청지역 기계설비연합회장으로서 산·학·연·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설비건설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모범 건설단체 및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회원사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항상 회원사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봉사자로서 우리업계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설비건설업계의 큰 일군이 되겠습니다.

## 중점 추진 사업

### 첫째,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 강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겸업제한 폐지가 기계설비공사업만 4년간 유예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우리 기계설비공사업까지 완전 폐지됩니다.

대전·충남도회는 업역개방에 따른 이 위기를 우리업계의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와 직할시공제 및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을 통하여 도급영역 확대·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둘째,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설비공사 수주환경 개선

대전·충남도회는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수주, 저가하도급 방지 등 설비공사 수주환경을 개선하여 회원사의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셋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시행에 적극 협조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은 기계설비의 장기적인 발전과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업계가 모두 역량을 집결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충남도회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후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이 합리적이고 신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본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과 학계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넷째, 기술자 및 기능인력 확보 추진

대전·충남도회는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화에 따른 회원사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인력 양성기관 및 학교의 관련학과 출신 기술·기능인력을 파악하여 회원사에 추천하고, 장

기적인 업계발전을 위해 설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원사업 등 인재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섯째, 우수하고 강한 협회 구축

대전·충남도회는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며, 모든 회원사가 인화·단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수하고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충남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급변하는 건설환경 변화 속에 기계설비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건설산업입니다.

저는 기계설비의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계설비분야의 도급영역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업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동안 기계설비업은 건설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업계의 위상도 그와 더불어 크게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에 발맞춰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도회는 우선적으로 대전·충남지역 설비건설업계와 일치단결하여 저가하도급,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한 저가덤핑수주와 과당경쟁을 근절하여 제값받는 공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발주 확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충남도회 황광연 회장은?

- 1955년 생
-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
- 한밭대학교 최고설비경영자과정 수료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PE)
- 건설사업관리 전문가(CMP)
- 제6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의원 역임
-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장 역임

- 現, 대전·충청지역 기계설비연합회 회장
- 現, 우송정보대학 기계공학계열 겸임교수
- 現, 대전광역시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 現, 대전광역시 안전관리 자문위원
- 現, 대전시 동구청 주택재건축 평가위원
- 한밭대학교총장 공로패
- 대한설비건설협회장 공로패
- 대전광역시장 표창